

人間的 感性把握을 위한 感性語彙의 整理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Arrangement of Emotional Words for Understanding the Human's Emotion)

權奎植*, 李舜堯*, 禹錫讚*

Abstract

The idea of modern product design is translated from the concept of functional importance as the basic function to that of emotional importance as the supplement function. In other words, the interests of the emotion in human performance side based on psychological factors of human are increased as well as the function in technical performance side based on physical factors of product. The standard emotional words for understanding the human's emotion are arranged in this paper.

The standard emotional words are composed of words expressing the human's emotion. The adjectives adaptable to human's emotional words are collected from Korean dictionaries and arranged in the semantic differential(SD) scale. Next, the words with great marks evaluated by SD method a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FA) method and characterized as emotional words for understanding the human's emotion.

The standard emotional words arranged in this paper are important because they are basic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roduct or technology as well as for the matter of emotional measurement technical development.

I. 서론

인간의 물리적인 편리성을 추구해 온 기존의 기술체계는 인간이 정서적으로 만족된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미래사회의 기술체계로 변혁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능중심의 상품개발에서 벗어나 인간적 요소에 착안한 상품가치의 향상에 역점을 두고서 제품의 기본적 기능을 초월한 사용하기 쉬운 상품, 쾌적한 생활환경 등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제품의 디자인이나 생활공간의 설계를 추구하여 이를 제품화,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1]. 특히, 제품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제품이 가지고 있는 품질이나 신뢰성과 같은 고유의 기본기능에 더불어 보조기능으로서의 색채, 형태 등에 대해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의 보조기능에 대한 인간의 감성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기본기능에 대해서는 기능추구의 가치공학적 사고의 접근과 보조기능에 대해서는 감성추구의 감성공학적 사고의 접근을 시도한다면 기능과 감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제품의 디자인에 일보 전진할 수가 있을 것이다.

* 高麗大學校 産業工學科

인간과 기계 및 환경을 주제로 한 휴먼 인터페이스는 크게 가치공학에 기반을 두고서 기능분석을 통한 제품의 기능을 추구하는 기능적 인터페이스와 감성공학에 기반을 두고서 감성분석을 통한 감성추구의 감성적 인터페이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2], 본 연구에서는 이에 기능적 인터페이스에서의 기본기능에 상응해서 보조기능에 감성적 인터페이스로의 접근을 시도하여 인간과 제품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인간중심적 제품개발에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따라서, 제품의 디자인을 위한 보조기능으로서의 제품에 대한 인간의 감성적 느낌을 제품 디자인에 반영해 줄 수 있는 표준화된 형태의 감성어휘를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간의 감성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인간의 이미지에 따른 감성어휘를 추출하여 주요 감성요인별로 감성카테고리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는 또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감성파악을 위한 감성어휘의 데이터 베이스 개발을 위한 선결과제로서도 감성의 정리측면에서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은 그림 1에 나타나 있으며, 이중선으로 되어 있는 감성어휘의 정리가 본 연구에서 다루어 질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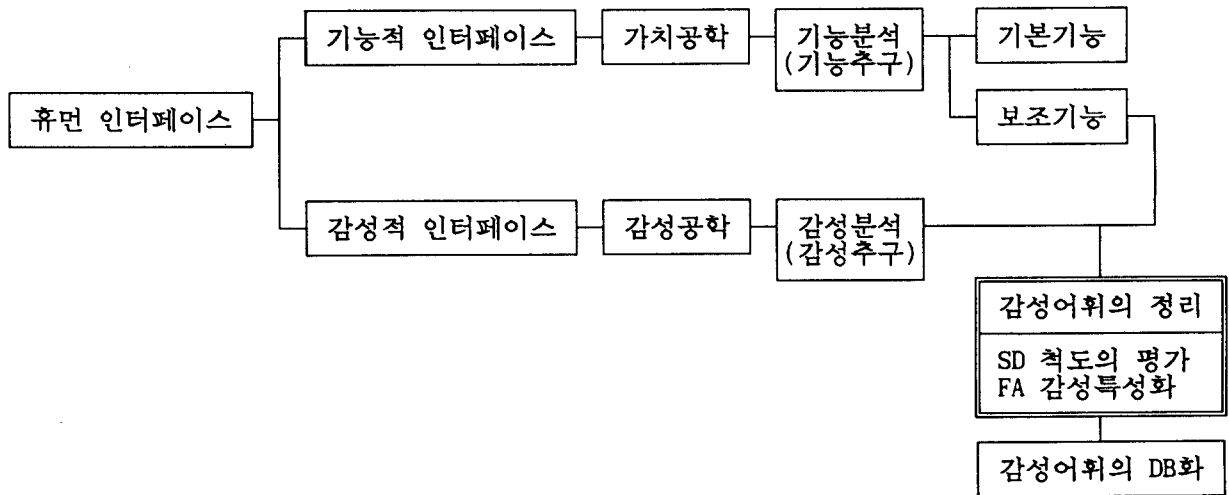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도

II. 본론

1. 감성어휘의 정리의 의미

감성어휘의 정리는 제품의 기능정리에 상응해서 인간의 감성정리의 일환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기능의 정리가 기능을 상위, 하위 등으로 그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듯이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한 이미지의 영상을 어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감성어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품에 디자인하여 표현할 것인가 이는 바로 감성어휘의 효율적인 정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3]. 또한, 인간의 감성이 풍부한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대상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감성이 파악되어야 하며, 이는 인간의 이미지에 대한 감성이 표준화된 형태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추출되어진다면 효율적인 감성어휘의 추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감성어휘의 정리

본 연구에서의 감성어휘의 정리는 인간의 감성적 느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어휘를 추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먼저 국어대사전으로부터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어휘로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형용사를 수집하여, 이를 5등급에 의한 의미미분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SD Method)에 의해 정리한다. 다음으로, 정리된 어휘들을 평가하여 고등급의 인간의 감성파악을 위한 감성어휘를 추출함으로써 이를 주요 감성요인별로 특성화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FA)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특성화된 감성어휘를 감성카테고리로 종합정리함으로써 인간의 감성파악을 위한 형용사로서 정리하게 된다. 그림 2에 나타난 단계별 감성어휘의 정리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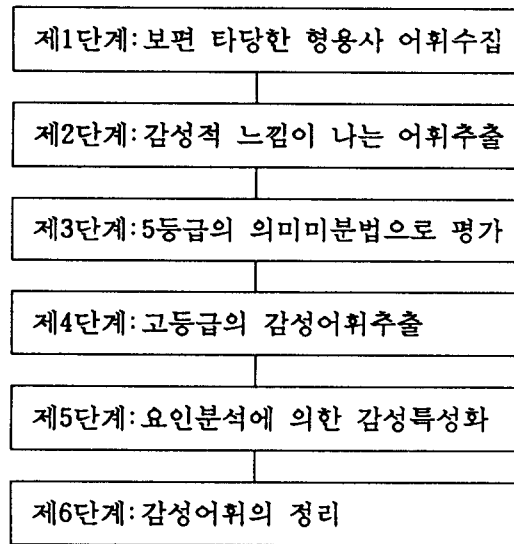


그림 2. 단계별 감성어휘의 정리순서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기 위한 감성어휘로서는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형용사를 소재로 하여 인간의 이미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SD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형용사를 추출하기 위해 제1단계로 약 40만 단어가 수록되어 있는 국어대사전으로부터 16,000개의 형용사 중 중복을 배제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1,653개의 형용사 어휘를 수집하였다[4,5]. 제2단계는 다시 이들 형용사 중에서 감성적 느낌을 준다고 생각되는 어휘만을 추출하여 512개로 집약하였다.

제3단계에서는 인간의 감성어휘에 대한 감성파악의 어휘로서의 적합성을 평정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5등급의 SD척도에 따라 집약된 어휘를 정리하여, 감성적 느낌의 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6].

제4단계에서는 제3단계의 SD척도에 따라 평가된 감성어휘 중에서 고등급의 감성어휘를 추출하기 위해 4, 5등급의 어휘를 평균평점 이상의 어휘로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265개의 감성어휘를 추출하였다. 제5단계에서는 제4단계의 감성어휘 중에서 대표적인 어휘로 구성된 40개의 변수로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감성요인별로 감성카테고리를 이루었다[7,8].

(예)		매우 부적합				매우 적합
		1	2	3	④	5
	아름답다	1	2	3	④	5
	하얗다	1	2	3	4	5
	따뜻하다	1	2	3	4	5
	쾌적하다	1	2	3	4	5
	어둡다	1	2	3	4	5
	가볍다	1	2	3	4	5
	안락하다	1	2	3	4	5

그림 3. SD 척도에 따른 평가 예

다변량 분석으로서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1요인으로는 “하얗다”, “질다” 등으로 대표되는 “색채에 관련된 어휘”, 제2요인으로는 “크다”, “길다” 등으로 대표되는 “크기에 관련된 어휘”, 제3요인으로는 “아담하다”, “귀엽다” 등으로 대표되는 “형태에 관련된 어휘”, 제4요인으로는 “아늑하다”, “쾌적하다” 등으로 대표되는 “주위공간에 관련된 어휘”, 제5요인으로는 “기타 감정에 관련된 어휘” 등으로 감성특성화를 이루었다. 제6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들 5개의 감성요인별로 관련된 감성어휘들을 고등급의 어휘로 구성하여 종합정리하였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래지향적 제품의 디자인을 위한 감성적 인터페이스 측면에서의 보조기능에 대해 인간의 감성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기능과 감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시스템의 일환으로서 표준화된 형태의 감성어휘에 대한 감성정리에 대해 다루었다. 이를 위해 국어대사전과 한국어 형용사사전 등의 관련 문헌으로부터 형용사 어휘를 수집하여 이를 설문조사와 SD 척도평가 및 요인분석 등을 통해 주요 감성어휘별로 특성화를 이루었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설문대상자, 설문항목, 분석방법 등을 보완함으로써 감성어휘의 정리를 통한 감성어휘 데이터 베이스를 개발하고, 또한 실제로 어떤 대상을 정해 놓고 이를 사용자층을 표본으로 하여 설문조사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용성의 검토와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IV. 참고문헌

1. 長町三生, 感性工學, 海文堂, 1989.
2. 이순요, 미래지향적 인간공학, 박영사, 1992.
3. 이순요, VE 실무, 법경출판사, 1984.
4. 김민수 등,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2.
5. 박준하, 김병선, 한국어 형용사사전, 1991.
6. 김영선, 색채 서술어에 의한 색채의 심리적 차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7. 채서일, 김범중, SPSS/PC*를 이용한 통계분석, 법문사, 1991.
8. 김성천, 문경일, SPSS 시리즈 활용법, 집문당, 1990.